

3893
3.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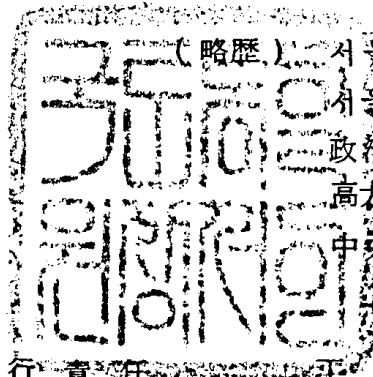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分斷國調查研究

南北韓의 民族概念比較研究

研究執筆責任

崔 相 竜



(略歴) 서울大 文理大 外交学科卒
서울大 大学院 外交学科卒
政治学博士(東京大)
高太亜研研究員
中央大助教授

刊行責任

世 鉉 (調查研究室 補佐官)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bottom right area, including a date '2010' and other illegible text.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序論—比較의 基準과 方法	3
2. 北韓의 民族概念	6
3. 南韓의 民族概念—現況과 課題	21
4. 要約과 展望	29
脚 註	33



南北韓의 民族概念의 比較

1. 序論 - 比較의 基準과 方法

일반적으로 比較政治學에서 論議되는 比較의 基準과 方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 近接比較와 遠隔比較의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近接, 遠隔은 물리적 거리의 遠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機能的 遠近 또는 歷史社會學的·政治社會學的 의미의 遠近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서구민주주의체제 상호간의 비교나 사회주의정치체제 상호간의 비교는 近接比較라고 할 수 있고, 서구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유럽諸國과 非유럽신생諸國의 비교는 遠隔比較라고 할 수 있다. 물론 近接比較와 遠隔比較의 경계는 불명확하여, 이를테면 서구민주주의와 北歐민주주의의 비교라든가 東歐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 사회주의의 비교를 近接으로 볼 것인가 遠隔으로 볼 것인가는 論者의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다르며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要素比較와 體系比較의 문제이다.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諸要素의 비교를 要素比較라 하고 그 정치체제 전체의 비교를 體系比較라 불러본다. 정당이나 선거, 정

치문화, 국민성등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요소비교의 예에 속하고 정치체제의 구조자체를 巨視적으로 보는 비교연구는 체제 비교에 속한다고 하겠다.

셋째, 定性比較와 定量比較의 문제이다.

우리가 보통 쓰는 전통적 방법에 의한 比較는 前者에 속하고 行態論的 방법 특히 計量的 技法에 의한 比較는 後者에 속한다.

그러면 이 小論의 주제인 「南北韓의 民族概念의 比較」는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 筆者는 南韓과 北韓을 각기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취하는 相異한 정치체(polity)로 보고, 統一新羅 이래 약 1천 3백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온 韓民族이 33년간 상이한 정치체제하에서 民族 내지 民族主義라는 概念을 어떻게 把握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를 그 異質性和 共通性的의 양면에서 比較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單一민족의 韓半島이지만 일단 遠隔比較의 基準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南北韓의 정치체제 자체에 대한 比較가 아니고 南北韓의 民族 내지 民族主義 概念만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要素比較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比較의 方法에 있어서는 이른바 計量的 統計的 技法이나 經驗적 조사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 아래와 같은 定性比較의 方法을 채택했다.

筆者는 南韓이나 北韓에서 출판된 각종의 사전이나 관련 문헌에 나타난 民族 및 民族主義의 定義와 그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南北韓의 民族概念을 比較하고자 한다.

分析의 순서는, 우선 北韓의 民族概念에 대한 定義의 原型이라고 할 수 있는 맑시즘의 民族이론, 구체적으로는 蘇聯의 民族概念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것이 北韓에 어떻게 수용되어 오늘날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分析하고 그다음 南韓(以下 韓國)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歐美의 民族概念과 그 한 국적 의미를 검토하기로 한다.

2 . 北 韓 的 民 族 概 念

北韓의 民族概念은 기본적으로는 맑시즘의 이론틀속에서 도출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스탈린의 민족에 대한 定義를 거의 전면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맑스, 엥겔스의 정치인식은 「사회적 모순의 인식」→「人間 疎外의 추구」→「시민사회의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된 관심은 인간의 問題,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民族은 그들의 사회분석을 위한 基本概念이 되지 않았다. 그들의 저서 「神聖家族」에서 민족성(Nationalität)이란 말이 쓰이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이 거의 동의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共産黨 宣言」에서도 "Nation"이란 용어가 나오긴 하나 그 의미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후세의 맑시스트들은 맑스가 「共産黨 宣言」을 발표할 당시 폴란드나 아일랜드 問題에서 피압박민족의 問題를 論하고 있기 때문에 이 Nation이란 용어도 그러한 긍정적인 문맥에서 봐야한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으나 역시 民族問題에 대한 인식은 애매하고 이론적 고찰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탈린에 의하면, 1848年 「共産黨 宣言」당시의 맑스는 민족에 대하여 離合集散하면서도 共通의 경향과 利害를 가진 일정한 집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헤겔은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여 민족은 국가를 형성함으로써만이 세계사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다. 맑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받아들이면서 헤겔의 국가에 대한 관념은 問題삼지 않았던 것 같다. 콜(G.D.H.Cole)이 「맑스는 헤겔없는 변증법이요, 히틀러는 변증법없는 헤겔」이라고 지적 함으로써 히틀러가 헤겔의 국가주의의 후예임을 시사한 것은 꽤 흥미롭다. 맑스가 그의 저서에서 쓴 Nation이란 용어는 헤겔이 말하는 국가라기 보다 막연한 민족공동체의 의미이다. 그는 「獨逸 이데올로기」에서 국가를 공동체의 대용물이라하고 있으며 國家死滅論을 전개하면서도 Nation 그자체에 대해서는 공격도 철저한 분석도 하지 않았다. 「볼케나우」는, 내셔널리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맑스주의 이론은 파산한다고까지 지적한 바 있다.

맑스주의측에서 民族概念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스탈린이었다. 이렇게 보면 맑스주의를 최고원리로 하고 있고 스탈린에 의한 군사점령으로 공산화된 北韓이 民族을 정의함에 있어서 스탈린의 民族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지 모른다.

以下 스탈린 및 제2차 세계대전후 소련內에서 소개된 몇개의 민족에 대한 定義를 자료로 제시한 다음, 北韓의 民族概念과의 관련에서 검토해보기로 하자.

① 1913年 스탈린의 정의

「民族이란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文化(心理狀態)의 共通

性를 기초로 하여 생긴, 歴史的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共同体」.

② 「로가체프·스벨드린」의 定義

「民族이란 經濟生活(勞動者 계급이 존재할 경우), 地域, 言語(특히 文章語), 민족적 歸屬意識, 거기다 약간의 心理的 特質, 習俗의 傳統, 文化, 解放鬪爭등의 공고한 共通性을 特徵으로 하는, 歴史的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집단」.¹⁾

③ 「쥬노소프」의 정의

「民族이란 資本主義이든, 社會主義이든 간에 그 經濟關係의 形成 과정에서 발달한 言語, 民族的 領土, 民族意識, 文化와 生活의 特유한 민족적 特질의 공고한 共通性을 特徵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²⁾

④ 1965년 「소련共産黨講義」의 정의

「민족이란 經濟生活, 地域, 言語 및 民族文化의 共通성에 나타나는 民族的 性格의 共通性을 基반으로 발생한 여러種族이나 人種들에 의해 歴史的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³⁾

⑤ 「로가체프-스벨드린」의 社會主義的 民族의 定義

「사회주의적 민족이란 社會的 均質性, 經濟的 利害의 共通性, 民族國家體 運命의 共有, 文化와 精神적 風貌의 單一性, 모든 社會階層의 國策主義적 世界觀을 特徵으로 하는 민족」.⁴⁾

⑥ 「칼타하찬」의 社會主義적 민족의 정의

「社會主義的인 民族이란 社會主義의 勝利의 結果 形成된, 單

一의 言語, 領土를 소유하고 경제적 이해, 국가, 문화적 사회 경제적 생활의 國際主義的 共通性和 정신적 풍모등의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共同体」⁵⁾

⑦ 1970년 北韓의 「철학사전」의 정의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제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⁶⁾

이상에서 소련 및 北韓에서의 民族定義를 자료로서 제시했다.

먼저 스탈린과 그의 3종의 民族의 定義사이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로가체프, 스웬드린」의 경우 言語라는 요인이 특히 文章語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소련의 言語學의 成果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고, 「쥬느소프」의 경우 민족을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라는 體制上의 차이와 무관하게 경제관계의 성립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⁷⁾ 概念으로 把握한 점이 特徵이고, 「黨史講義」의 정의에서는 民族의 구성 요소로서 民族的 性格이 부각된 것이 特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소련에서는 民族 概念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가치중립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른바 사회주의적 民族概念의 정의에 가서는 民族 概念이 사회주의에 의해 매개된 특수한 概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오토 바이어」의 말처럼 民族의 個性은 그 民族의 사회주의에 자기의 個性을 아로새기는 것에 불과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北韓의 民族에 대한 정의도 스탈린 이래의 민족 정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소련의 民族에 대한

정의와 다른 북한 특유의 民族概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 民族의 정의에 관련된 북한의 각종 사전에 나타난 공식적인 정의나 김일성의 이른바 「교시」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언어는 민족을 特徵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뗏줄이 같고 한 영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⁸⁾

「민족을 特徵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언어의 공통성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공통성은,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봉건적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인 국가가 세워지고 이 틀 안에 언어, 지역, 문화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점차로 이루어져 가는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었다.」⁹⁾

이른바 김일성 「교시」에 의하면 北韓에서는 言語를 민족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한국 국토통일원이 공개한 자료¹⁰⁾에 의하면 南北韓간에 言語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그나마도 스탈린식 民族概念의 4대 구성요인인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言語가 가장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言語의 중요성을 지적한 「교시」는 그나름의 革命戰略의 일환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民族概念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만 가지고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별해서 民族概念에 대한 北韓의 특성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北韓의 民族概念의 特徵은 민족과 관련된 다른 諸概念, 이를테면 민족주의, 사회주의적 愛國主義, 민족개량주의, 민

족적 자부심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하 北韓의 「철학사전」 「정치용어 사전」 「역사사전」 등의 기본 자료에 나타난 민족과 관련된 여러 概念들을, 긍정적 의미를 가진 플러스 상징과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마이너스 상징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否定的 의미로 쓰이는 概念과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계급적 利益을 전 민족적 利益으로 가장하여 내세우는 자본가계급의 사상이다.」¹¹⁾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가지 형태로 갈라진다. 하나는 대국배타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지배하는 나라 또는 한 나라안에 있는 큰 민족의 자본가 계급의 민족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지배받는 나라 자본가계급의 민족주의이다. 대국배타주의적 민족주의는 특히 제국주의시기에 독점자본가들의 侵略과 戰爭政策 식민주의정책에 복무한다.」¹²⁾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侵略勢力을 반대하고 民族的獨立을 이룩하기 위한 鬪爭과 결합할 때 일정하게 진보적 역할을 논다. 이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독자적 力量으로 鬪爭舞台의 선두에 나서기까지는 민족적독립을 위한 鬪爭이 민족주의의 기치밑에서 진행될 수 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민족부르주아지의 민족주의의 반제적측면은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반제반봉건민주

주의 革命에서 그들과 同盟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¹³⁾

② 민족개량주의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경제적 해방을 방해한 극악한 반동적 사회조류. 우리나라에서 민족개량주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일제와 정치 경제적으로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계급적利益을 반영하여 나타났다.」¹⁴⁾

③ 민족허무주의

「자기 민족의 우수하고 가치있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며 남의 것을 덮어놓고 찬양하며 우상화하는 사상」¹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은 적어도 공식적인 定義에서만 보면 「民族概念」 자체는 客觀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民族主義」에 대해서는 명백히 마이너스 상징(나쁜의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北韓은 民族主義를 「자본가 계급의 사상」이라고 규정하고 「민족주의는 인민들간의 親善關係를 破壞할 뿐만 아니라 우선 자기나라 자체의 민족적 利益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利益에 背馳됩니다」라고 하는 이른바 김일성의 「교시」를 추가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완전히 階級史觀의 입장에서 否定的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민족주의를 「지배하는 나라의 민족주의」와 「지배받는 나라의 민족주의」로 나누고 전자는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인데 반해 후자는 反帝民族主義로서의 진보적 역할을 한다고 하

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나 半식민지국가내의 민족 부르조아지의 민족주의는 노동계급의 반제 반봉건鬪爭과 同盟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동의어로 보되 식민지 半식민지국가나 후진국의 민족부르조아지에 의한 민족주의를 민족해방鬪爭이라 규정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제급사관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어디까지나 공산주의 革命의 戰略, 전술과의 관련에서 조작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1920년대 이래 코민테른의 이른바 統一戰線의 카테고리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제급사관이나 공산주의 革命의 戰略, 전술에서 보아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민족주의 사상이나 이론들은 이를 민족개량주의 민족허부주의등의 개념으로 비판한다. 요컨대 北韓은 뒤에 서술하는 긍정적 의미로서의 민족과 관련된 概念이외의 모든 민족주의는 부르조아민족주의 내지는 그 變種이라고 보고 있다.

그다음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한 概念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① 사회주의적 민족

「노동자계급이 주권을 잡고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방조하는 관계에 있는 민족」¹⁵⁾, 「사회주의적 / 민족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나뉘어져있는 부르조아 민족과는 달리 근로

자들 사이에 정치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진 민족」.¹⁶⁾

② 사회주의적 애국主義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¹⁷⁾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이며 계급의식,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다. 원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자기 나라에서 수령의 령도밑에 착취제도를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의 무기로 발생하였다.」¹⁸⁾

③ 민족적 자부심

「로동계급의 革命투쟁에서 제승하여야 할 민족의 훌륭한 모든 것에 대한 자랑의 감정이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尊嚴을 끝까지 지키고 민족의 어떤 問題든지 자신의 힘으로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신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민족적 자부심은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랑의 감정을 결합시키고 있다.」¹⁹⁾

④ 민족자주의식

「민족적 獨立과 번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

여 자기의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려는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革命的 자각이며 계급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민족적 자부심」²⁰⁾

이상의 概念 가운데 먼저 그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민족과 관련된 概念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조아적 민족이 아닌 사회주의적 민족의 주의·주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민족이란 概念은 기본적으로는 소련의 그것을 수용한 것인데 그 의미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소련의 사회주의적 民族概念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社會階層의 「국제주의적 세계관」을 特徵으로 하는 민족 즉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바탕을 두는 민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나 北韓의 사회주의적 民族概念은 노동자階級의 주권을 쥐고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협조하고 정치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진 민족이라고 함으로써 국제주의적 주장이 명시적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이들에 면 소련의 「철학사전」에서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고 민족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증오한다」²¹⁾ 고 되어있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의 「철학사전」에서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킨 것이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 궁지와 자부심」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프로레

타리아 국제주의보다 김일성개인 숭배와의 결합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北韓에 있어서 민족과 관련된 긍정적 概念은 거의 모두가 「民族的 자부심」 「수령을 모시는 자부심」 「민족적 자주의식」과 연결되지 않은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北韓을 民族概念의 客觀的 요소인 言語와 經濟生活의 중요성 못지 않게 혈통이나 자부심, 자주의식등의 심리적 정신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민족적 자부심」概念은 論理가 아니라 心理에 바탕을 두며, 그들 자신은 이를 「信心」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부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革命한다는 높은 긍지와 행복감」²²⁾ 이라고 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을 김일성과 더 붙여 시작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北韓에 있어서 민족은 그 概念의 사전적인 정의와는 관계없이 그 현실적 의미는 김일성 개인과 同一化됨으로써 民族이 金日成의 「父」概念에 매물되어 버렸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불리는 민족주의 자체의 근원도 김일성 개인에서 찾고 있다.

말하자면 민족 및 민족을 상징으로 하는 모든 주의 주장이 김일성 개인에 대한 熱狂主義(fanaticism)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아버지 수령」으로 불리고 있는 「父」概念은 北韓의 民族概念의 정치적 의미를 把握할 수 있는 열쇠概念이다.

우리는 이 「父」概念의, 특징을 어떠한 맥락에서 설명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莫論하고 전통적 공동체에서 근대적 민족국가로 準拠집단(reference group)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 새로운 準拠집단으로서의 민족은 전통적인 對面(face to face)집단과는 달리 추상도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가끔 구체적인 인격(personality)을 통하여 전통적 공동체에서 근대적 민족국가로의 전환을 促進하는 경우가 많다. 獨逸의 프리드리히大帝, 영국의 헨리 8세, 프랑스의 루이 12세, 非유럽諸國 이블테면 중국의 孫文, 인도의 간너, 네루등 이른바 「建國의 父」들은 그 좋은 예다. 이들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 나타난 카리스마로서 민중의 충성과 동일화를 한 몸에 独占함으로써 새로운 집단의 中核이된 경우이다.

2) 이러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한편으로는 전통적 준거집단이나 가치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대화의 추진력이 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준거집단이나 가치체제와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통합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들테면 영국에서는 이러한 연속성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主權神授說이 使用되었고 日本에서는 가족적 국가관이 그리고 獨逸의 나치는 血族的 국가관이 使用되기도 했다.

이와같은 역사적 퍼스펙티브에서 볼 때 北韓의 「父」概念을 제 2차세계대전前에 주체적 조직기반이나 민족통합의 상징적 기반을 가지

지 못했던 北韓이 전후에 急造한 김일성신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家父長的 權威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新興帝國,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여러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체제나 발전형태를 채택할 경우, 전통적 공동체의 인간관계가 주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아프리카 사회주의, 공산화되기전 캄보디아의 불교사회주의, 인도네시아 스카르노의 「나사콘」등은 그 좋은 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이미지가 중심이 되어있는 자연공동체가 사회주의의 원형(prototype)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北韓에서처럼 최고지도자 개인이나 그와 관련된 家統의 행동양식과 가치체계가 모형이 되어 그것이 전인민의 규범이 되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毛澤東이나 「호지명」의 경우도 카리스마의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으나 그의 家統이 인민의 일당생활의 모형이 되어 재생산되는 과정을 밟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의 「父」概念은 그것이 전통적 준거집단이나 가치체계에서 추출해낸 概念이란 점에서 다른 아시아·아프리카제국의 사회주의모델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전통과의 연속성의 이미지나 상징을 조작하는 方法이 철저히 김일성의 인격(personality)과 그의 가통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北韓에서의 바람직한 민족像은 김일성과 그의

업적에 同一化, 共感할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하며 그를 「인자한」 「父」로 하는 大家族集團과도 같은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의 민족과 김일성 개인과의 일체감을 조달하기 위한 주의 주장 및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전통유교의 家父長주의와 戰前 日本의 천황제 温情主義 (paternalism)에 다 소련의 스탈린이즘을 합친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끝으로 표현方法이나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南韓에서의 用語法과 유사한 「민족문제」 「민족자결권」 등의 概念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① 민족문제

「민족적獨立을 쟁취하여 완전한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인 개화를 이룩함으로써 온갖 민족적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는 問題」.²³⁾

② 민족자결권

「모든 민족이 완전한 평등의 原則에서 자기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며 자기민족의 모든問題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권리」.²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은 완전한 정치적 獨立을 이룩하고 민족자결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근본담보이다」.²⁵⁾

「민족問題」에 대한 관점이나 민족자결권의 정의를 보면 그

계급적 해석이나 수사학을 論議로 한다면 北韓이 비판하고 매도해
마지 않은 이른바 부르조아 민족주의에서 보는 관점이나 의미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아니 어쩌면 민족의 자기 주장에 대한 선
전은 오히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
이 보인다. 따라서 北韓의 기본입장인 민족에 대한 계급주의,
민족 내지 민족주의를 目標가치가 아니라 手段方法으로 보는 공
산혁명의 戰略·전술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자칫잘못하면 인식상
의 混迷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에서 北韓의 민족 및 민족주의와 관련된 여러概念에 대한
공식적 정의와 그 정치적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南韓에서의 민족 및 민족주의 概念에 관한 정의나 입
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南韓의 경우 北韓과는 달리 체제의 성격
상 통일된 공식적 정의가 있을 수 없고 학계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해석이나 입장이 주된 검토대상이 된다.

3. 韓國(南韓)의 民族概念 - 現況과 課題

戰後 韓國의 학계나 논단에서 民族이나 民族主義의 概念을 문제 삼은 것은 60年代 후반부터였다고 생각한다. 그 전엔 구미의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사전과 그것을 수용한 日本의 각종 사회과학 제통사전의 민족 및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를 개개연구자의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 한국적 관점,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民族問題를 연구주제로 제기하지는 못했다.

민족과 민족주의의 概念, 그것도 문화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정치적 민족주의를 학계와 논단 그리고 政界의 공동토론의 형식으로 제기한 것은 1967년 李用熙교수 주제하에 개최된 「한국민족주의의 大심포지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를 문화의 공동체로 규정하는 관점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며 문화가 정치의 여건(given)으로서 중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으나 문화적 민족주의가 반드시 정치적 민족주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민족주의는 민족문화가 그 사회의 가치체제로서 자각될 때 성립하게 되는데 이 문화적 민족주의가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을 促進시킬 때 비로소 정치적 민족주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²⁶⁾

전후 韓國의 정치적 민족주의는 東·西冷戰으로 기형화됨으로써 지난 3분의 1세기동안 사상이나 운동의 면에서 不毛性을 면치 못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50 년대의 冷戰時代에는 韓國은 근세 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민족주의의 不在시대를 겪어야 했었다. 민족의 통일에 대한 논의마저도 타부시되고 민족주의적주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선 상당한 용기를 必要로 하는 적도 있었다. 60 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동서 두 빨럭내부로부터 민족주의의 다원적 조직화가 진행되고, 제 3 세계제국이 각기 자국의 국가적 개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세계적수준의 탈 冷戰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분단국인 韓國은 다른 제 3 세계제국과 같이 냉전체제로부터 이탈하여 비동맹중립주의를 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60 年代 후반부터 학계나 논단의 일부에서 민족 및 민족주의의 概念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70 년대에 들어와서 韓國은 경제력 국방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력의 신장으로 자신감을 갖게됨으로써 통일 자주 자립 주체성등 민족주의적 상징과 가치가 自明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오늘날 韓國은, 역사적으로는 제 3 세계 여러나라들과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는 日本을 包含한 서방의 선진제국이 이미 달성한 고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동·서 냉전의 유산이 민족의 분단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信念체제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冷戰型分断国」 특유의 기형적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80 년대 90 년대를 향하는 韓國은 국가, 민족적 차원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一体感, 統合의 요구를 더욱 필

요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후 민족 및 민족주의와 관련되는 가치가 더욱더 강조 될 것이며 그럴수록 학계와 논단에서 韓國의 民族概念과 바람직한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概念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래 한국에서의 민족개념을 대체로 서방측의 社会科学, 특히 政治學에서 논의되는 民族概念을 모형으로 해왔는데²⁷⁾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客觀說로서 民族의 본질을 客觀的인 요소에서 찾는 것으로 이를테면 共同의 言語, 共同의 地域, 共同의 種族, 共同의 宗教, 風習, 慣習, 共同의 政治, 경제적 유대, 共同의 역사적 운명등을 들고 있다.

그다음 둘째는 主觀說로서 民族의 本質을 主觀的, 心理的 요소에서 찾는 것인데 민족의 본질이 앞에 열거한 客觀的 諸條件 가운데 하나 또는 몇개의 결합에 있다고 보지 않고 民族情神, 民族感情, 民族意識 등에서 찾음으로써 民族의 概念을 다른 요소에 환원해 버릴 수 없는 "有機的인 것"으로 把握한다.

民族 概念에 대한 이 두說은 현실적으로는 분리하기 어렵고 대체로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民族이 일정한 客觀的 조건에 의해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기초로 해서 民族의 存在가 民族自身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자각되고 의식됨으로써만이 민족이 그 현실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민족의 客觀的 요소로서 언어, 역사, 風習, 혈연 등의 지표들, 그리고 주관적 요소로서 열 또는 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韓國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서방측의 民族概念과의 관련에서 李用熙교수는 獨特한 표현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민족개념은 단순한 객관적실체가 아니라 「내」나라라는 歸屬感과 情感의 소유자인 사람과 집단의 집결체이면서 동시에 「내나라의 주인」이라는 권리의 원천으로 규정된다. ²⁸⁾ 고하고, 민족주의를, 「내나라라고 하는 정치, 경제, 문화체제의 형성과 高揚을 민족, 국민이라는 人的인 면에서 정당화하려는 集團의사」 ²⁹⁾ 로 정의했다. 즉 民族意識과 主權意識을 媒介로 해서만이 民族概念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실령 美體的인 한 民族이 역사상 存在하는 경우라도 정치권력의 名分 또는 통치의 名分체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민족주의의 가치관을 지닌 民族概念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³⁰⁾ 는 것이다.

그런데 南韓에서는 民族 및 民族主義의 概念이 플러스 象徴으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階級史觀과 社會主義理念에서 把握하는 北韓의 명백한 입장에 비하면 그 指導階層이 불확실하고 그 思想內容, 이를테면 自由民主主義에 의한 思想的 매개가 그렇게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³¹⁾

우선 指導階層의 불확실성에 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자주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李用熙교수는 민족의 기준내용을 설정함에 있어서 민족의 모델像을 결정하는 階層 즉 指導階層이

누구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戰前 한국민족주의 指導階層은 半식민지화의 시기에 士林, 官人엘리트, 신흥지식인 대중등이 衛正斥邪, 開化, 東學등 각기 그 성격을 달리하는 민족운동의 노선을 형성했으나 日本식 민지 통치하에서는 당시의 식민지체제에 편입된 소수의 엘리트階層 以外的 모든 階層을 총망라한 全韓民族이었다.

그러나 1945년 8.15 이후 韓國에서는 어떤 階層이 민족주의의 지도세력이나 하는것이 거의 불문에 붙여져 왔고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문제삼는다는것 자체가 정치적인 쟁점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유동성 상황속에서 현대 韓國民族主義의 指導階層을 問題삼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李用熙교수는 1967년 「韓國民族主義」 대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기조논문에서 한국민족주의의 指導階層을 農村의 대중과 도시의 知識階層에 두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農村人口의 감소로 대중의 중요한 구성을 농민에서 도시근로자로 이행하고 있으나 한국민족주의의 지지기반을 대중에 두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그후 많은 민족주의 연구가들에 의해 표현방법을 달리하면서 재확인 되어왔던 것이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大衆概念의 애매성이다. 大衆은 뷔제 (Leopold von Wiese)의 지적대로 用語法의 비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할만큼 그 의미가 다양하다.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대중은 엘리트주의나 팻시즘이론에서 처럼 마이너스象徴으로 쓰이기도 하고 팝스주의나 각종의 포퓰리즘(populism)에서는 플러스의미로 쓰

이기도 한다. 또한 大衆을 중립적 기술적 概念으로 다루어 집합체 (collectivity)의 한 형식으로 다루려는 경향도 있다. 여기서 筆者가 쓴 대중은 기본적으로는 현대대중사회의 대중이며 자발적 결사로써 적극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측면과 수동적인 "고독한 군중" (Lonely Crowd)으로 원자화해 버릴 수 있는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指稱하는 것이다.

이러한 大衆概念의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구태어 한국민족주의의 지지기반을 대중에서 찾는다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1) 근대민족국가의 발전과정을 보면, 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이 귀족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대중으로 이행³²⁾ 함으로써 현대민족주의 특히 신생국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大衆民族主義를 표방하는 것이 역사적 대세로 나타나고 있는 점.

2) 대중을 이른바 역사 創造의 주체로 모든 역사에 있어서 수동적, 객체적 존재로 모든 간에 근대이래의 모든 정치지도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중의 조직화를 시도했고, 또한 성공적인 정치 理念은 거의 예외없이 당시의 대중의 지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

3) 韓國의 정치문화는 포퓰리즘의 전통이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大衆概念이 푸러스象³³⁾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

그러나 오늘날 韓國의 現狀은 民族像, 國民像을 주도할 階層이 与件 (given)으로서는 莫然히 大衆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들이 民族像을 주도하는 階層이라는 自覺하에 통합되어있느

나 하는것은 펍 의문이며, 국가수준의 政治的 決定과정에서 그들의 自覺을 促求하는 「위로부터의 지도」도 펍 미흡한 狀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 韓國의 민족주의가 어떠한 보편적 政治理念과 결합하느냐하는 문제이다.

한국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의 뿌리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저항을 내재적으로 근거지워주는 보편적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더우기 전후 한국민족주의는 理念的으로 양극화 됨으로써 미·소의 國際冷戰이 국내정치에 구조적 분열도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한계상황을 극복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후 南北韓은 보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제당함으로써 北韓은 "점령공산주의" 南韓은 "점령민주주의"의 사상적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北韓은 "小 켈스타리니즘"의 전통을 심어 놓았고 南韓은 수입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환상에서 이제 뒤늦게나마 깨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금후 한국민족주의가 선택해야 할 보편주의적 理念은 무엇일까?

공산주의와의 결합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도 自明하며 제 3의 有効한 理念이 없는 한, 전후의 경험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의 결합을 지향하는 것이 숙명일지 모른다. 실제로 한국민족주의가 어떤 형태로든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와 결합해야 한다는 原則論

에 대해서는 정치적 및 知性的 지도자나 일반국민에 광범한 합의가 있는것 같다. 이 경우 자유민주주의란 정치제도로서의 한정된 의미만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가 한국적 개성에 맞게 뿌리를 박는 文化變容 (acculturation) - 土着化의 과정 속에서 把握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무비판적 수용도 경계해야 하지만 자유에 대한 회의와 nihilism은 더욱 위험하다. 南韓이 北韓공산주의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가치는 아직도 「자유」임에 틀림없으며 공산국가의 자기붕괴의 계기도 자유라는 가치에서 싹트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것과 민족적 주체성을 지킨다는것은 원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한국민족주의는 자유라는 가치에 의해 매개됨으로써만이 그 사상의 卽自³⁴ (an sich) 性을 극복할 수 있으며 폐쇄적 소비니즘이 아니라 인류나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족주의로 발돋움할 것이다.

4. 要約과 展 望

이상에서 우리는 南韓과 北韓에서의 民族概念의 대강을 비교, 설명해 보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北韓은, 1) 스탈린의 民族概念을 받아 들이고 있으나, 民族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 가운데 言語를 가장 중시하고 있고, 아울러 血統, 민족적 자부심, 信心 등 주관적 심리적 요소도 강조하고 있다.

2) 민족을 단위로 하는 政治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概念에 대해서는, 계급사관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민족주의=부르조아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식민지 半식민지내의 부르조아 민족주의만을 통일전선의 맥락에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뿐, 모든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부정적 概念으로 把握하고 있다.

3)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표현되는 北韓의 "민족주의"는 원리적으로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연결되나 현실적으로는 김일성 개인이나 그 「家統」의 가치체제나 행동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충성 일체감을 요구하는 熱狂主義(fanaticism)的 개인 숭배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4) 北韓의 민족주의는 비록 변태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공산주의와의 사상적 결합을 토대로 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 결합형태는 농민을 주축으로 한 中共型分權主義 보다는 노

동자를 주축으로 한 소련型 中央集權主義에 가깝다.

南韓은 ,

1) 西方側의 民族概念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체제의 성격상 北韓과 같은 통일적이고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2) 民族을 특정階級에 우선하는 개념으로 把握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주의=부르조아 민족주의라는 단일의 규정이 아니라, 韓國의 역사적 특성에 따라 抵抗民族主義와 市民民族主義³⁵⁾를 중심내용으로하는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민족주의는 명백히 긍정적인 概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전후 韓國의 민족주의는 통합상징으로서의 유효한 카리스마나 神話를 지속적으로 가지지 못했고 보편주의적 理念 이룰테면 자유민주주의와의 사상적 결합이 견고하지 못하다. 이와같은 현상은 北韓과는 달리 多元的 價値가 許容되는 韓國정치체제의 성격상,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思想으로서나 運動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딛고 넘어가야할 理念的 실천적 과제이다.

아뭏든 인류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있어서 有效한 세계 정부가 달성되지 않고, 많은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명제대로 ①국제 정치의 기본양상이 理念的인 壓力보다 힘과 힘의 鬪爭이란 점, ②국제 정치의 궁극적인 주체가 민족국가인 점, 그리고 ③그 민족 국가의 정책목표가 국가利益이라고 한다면³⁶⁾ 힘의 정치로 전개

되는 국제환경속에서 개개 민족국가의 정치적 결정의 理念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는 결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기 자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경제노선에 相應하는 민족주의를,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대외정책의 전제로 하게 될 것이다.

금후, 중, 장기적으로 보아 韓國이 대세를 先取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강구해 나가지 않는다면, 韓國이 선택해야 할 정치노선에 심각한 混迷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주변강대국의 利害에 따라 韓國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韓國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강대국의 數만큼의 기생세력으로 변신하여 4분 5렬 됨으로써 한말의 정치상황을 방불케하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韓國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상황판단을 전제로하여 민족의 전통과 利害과 사명감에 토대를 둔 민족주의를, 어떤 형태로든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1) 장래에 예상될 수 있는 주변강대국간의 데탕트나 理念上的 混迷에 따라 3분의 1세기에 걸친 경직된 양극체제가 이완, 붕괴되는 과정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을 理念的 초석은 - 그것이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든 이른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든 간에 - 南北韓이 다같이 민족주의일 것이다.

2) 민족통일의 당사자인 南韓과 北韓은 금후 남이갈수록 이데올로기적 갈등보다 체제간의 힘의 대결양상으로 나타나게 될것인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민족概念의 지역적 外延(적용범위)이 南北韓을 包含한 한반도가 되지 못하고 민족주의의 象徵이나 이니셔티브를 先取하기 위한 南北韓간의 競争의 시대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3) 韓國의 경우 해방전과 같이 명백한 鬪爭목표(外敵)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고양시킬 계기를 외부에서 찾을 수 없고 민족의 통일과 個權의 신장에다 목표가치를 두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통일을 목표가치로 하지 않은 민족주의 論議는 공허하다. 통일을 문제 삼지 않은, 분단하의 민족주의는 한갓된 수사학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는 한국민족주의의 未米像에 대한 南北韓의 競争的 정책표명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統一에 이르는 長期的 政治過程속에서 韓國은 平和體制로 移行하기 위한 自己改革(self-reform)과 한국민족주의의 內面的 바탕이 되는 個權의 擴充을 위한 民主化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註

- ① 田中克彦「ソ連邦における民族理論の展開」
-脱スターリン体制下の国家と言語-
「思想」,1975年5月号 p.10. 日本 岩波書店.
- ② 같은책, p.11.
- ③ 같은책, 같은면.
- ④ 같은책, p.16.
- ⑤ 같은책, 같은면.
- ⑥ 「철학사전」,北韓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사회과학출판사 1970 p.256.
- ⑦ 1967년판 소련의 「철학사전」에서는「民族概念」의 구성요소
로 경제생활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A Dictionary of Philosophy, edited by M. Rosenthal
and P. Yudin, Progress Publisher, Moscow 1967 p.304 参照.
- ⑧ 위에 든 北韓
「철학사전」, p.256.
- ⑨ 같은책, 같은면.
- ⑩ 国土統一院, 北韓調査研究:
「北韓異質化美態調査, 一時期別, 地域別, 階層別 變動特徵」
1978. 参照.
- ⑪ 위에 든 책 北韓「철학사전」 p.259.

- ⑫ 같은책 , p.260.
- ⑬ 같은책 , 같은면 .
- ⑭ 같은책 , p.256.
- ⑮ 「정치용어사전」北韓: 사회과학출판사. 1970 .
- ⑯ 같은책 , 같은면 .
- ⑰ 위에 든 北韓 「철학사전」, p.376.
- ⑱ 같은책 , 같은면 .
- ⑲ 같은책 , p.259.
- ⑳ 위에든 北韓 「정치용어사전」, p.256.
- ㉑ 위에든 소련 A Dictionary of Philosophy, p.333.
- ㉒ 위에든 北韓 「철학사전」, p.259.
- ㉓ 같은책 p.257.
- ㉔ 위에든 北韓 「정치용어사전」, p.255.
- ㉕ 위에든 北韓 「철학사전」, p.259.
- ㉖ 崔相竜, 「新興國의 民族主義: 家徵과 現美」
 國際政治論 1977, p.90.
 文化的 民族主義의 한국적 의미에 관해서는 盧在鳳
 「啓蒙主義批判; 韓國政治學會報, 1976.pp195-202 參照 .
- ㉗ 車基璧, 「한국민족주의의 理念과 美態」,
 도서출판 「가치」 1978.
 陳德奎編, 「韓國의 民族主義」(現代思想社 1976)를
 집필한 14人의 著者 그리고 「韓國民族主義의 理念」

(叢 經 叢 政 策 研 究 院 1977) 를 집 필 한 5 人 의 저 자 들 이
표 현 方 法 에 차 이 가 있 으 나 공 산 주 의 의 民 族 概 念 과
팻 시 즘 의 국 가 주 의 적 民 族 概 念 을 채 용 하 지 않 고 , 반 식 민
민 족 주 의 (저 항 민 족 주 의) 와 유 럽 의 국 민 주 의 적 민 족
내 지 民 族 主 義 概 念 을 肯 正 的 으 로 받 아 들 이 고 있 다 는
점 에 서 공 통 하 다 .

- ②⑨ 李用熙著 盧在鳳編, 「韓國民族主義」端文堂, 1977, p.10.
- ③① 같은책, p.35.
- ③② 같은책, p.10.
- ③③ 필자는 전후 한국민족주의를 「概念의 불명확성」, 「思想의
即自(an sich)性」, 「담당세력의 불확실성」등 3가지 시각에
서 그 문제점의 대강을 지적한 바 있다.
(韓 國 政 治 學 會 報 , 1976 , 韓 國 政 治 學 會 抽 編
「戰後韓國民族主義의 問題狀況」參考.
- ③④ E.H.Carr, Nationalism and After, 1965, pp.7-8.
- ③⑤ 大衆概念은 民衆 人民 등의 푸러스 象徴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愚民(mob)이나 群衆(folla) 등의 마이너스 象徴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韓國에서는 大衆民衆이 비교적 푸러스
의 意味로 쓰이고 있고 "庶民"은 푸러스 象徴이긴하나 약
간 소극적 내지 체념적 의미를 수반한다.
- ③⑥ 헤겔 辯証法에 있어서 認識은 어떤 契機에 의해 媒介(Ver-
mittlung)되는 인식인데, 即自(an sich)는 인식의 원초적

段階, 즉 對自 (für sich) 에로 이행하기 전의 段階를 의미한다.

- ㉔ 李用熙教授는 부르췌아 민족주의를 시민민족주의, 反식민지민족주의를 저항민족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李用熙著 盧在鳳編 위에든 책 「韓國民族主義」, pp.20-30.

- ㉕ 이를테면 H.J.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1966,이나 J.Frankel, 'National Interest', Macmillan 1970, 등에 나타난 「힘」과 國家利益에 關한 所論을 필자 나름대로 정식화 한 것임.